

하나님의 종

* 10/1 (목) ④ 여호수아 13-17장

1-12장 약속의 땅 점령

1-2장 부르심, 준비들
3-5장 도강, 결단의식
6-8장 중부 가나안 정복
9-10장 남부 가나안 정복
11장 북부 가나안 정복
12장 승전 회고, 요약 논평

13-21장 땅 분배

▶ 13장 땅 분배 명령-분배
▶ 14장 갈렙과 헤브론
▶ 15-17장 5지파의 땅 분배
18-19:48 7지파의 땅 분배
19:49 여호수아와 뎀낫세라
20장 도피성
21장 레위지파 성읍
하나님 은혜에 감사

22-24장 땅 유지

22장 동쪽 지파 귀환과 소통 문제
23장 여호수아의 권고
24장 세겔 갱신 서약
이스라엘 구원사 회고

Before **줄치며 읽기**
지도와 함께 통독합니다.

After **묵상하기**
여호와와의 종
참된 지도자
품위와 권위

오늘 본문은 지파, 지역, 도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와 별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지만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비전이(창 12장)
긴 세월을 지나 여호수아의 때에 드디어 응답된 것입니다.
본문의 지역, 도시 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세세하게 성취되었다는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21:43-45).

* 여호수아서에 총 15회 사용.
14회는 모세에게, 단 1회만
여호수아에게 사용됨(24:29)

참고도서

현대성서주석
HOW주석, WBC 주석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12지파 연합군은 거점 도시 정복을 마쳤습니다(1-12장).
이제는 지파 별로 구획을 나눠 남은 땅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갈렙은 일부러 힘든 상대인 헤브론을 택하여 정복합니다(14:12).
용기를 내어 지파 별 정복을 완수하도록 술선수범한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 때의 판결을 상기시켰습니다(17:3).
가문의 기업을 지키려는 적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후손>임을 과시했습니다.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며 분깃을 더 요구했습니다(17:14).
여호수아는 누군가의 후광을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적과 싸워,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합니다(17:18).

여호수아는 더 이상 군 사령관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파, 다양한 사연들 앞에 조정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은퇴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언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13:1).”

여호수아는 12지파 연합군의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거점도시 정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한 85세의 갈렙도 여전히 현역으로 참전하는 중입니다(14:6-15).
아쉬움과 섭섭함이 들 법 하지만, 그는 두말없이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사연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권위와 노련함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13:6).”
하나님의 명령 중에 <라크(קַרְק)>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일은 담당자에게 신뢰하며 맡겨버리고,
너는 네 일만 제대로 하라, 는 당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지파별 전투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성공한 전임자로서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절 관여하지 말고 새 업무에나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다음 전쟁을 수행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미개척지를 향하는 다음 세대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땅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업적과 지위, 연륜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땅을 가장 마지막에 배정합니다(19:49).
많은 땅 중에서도 거칠고 가파른 땅, 덤밭 세라를 몫으로 받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
책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여호수아는 새 호칭으로 불립니다(24:29).
내내 모세에게만 쓰였던 그 호칭,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 출처 (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여호수아> 손석태
(원 출처) 우드스트라 (M.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바이첼 (B.J. Beitzel), The moody Atlas of Bible Land
지도 출처 (우) 토마스 V. 브리스코 (Tomas Brisco), Holman Bible Atlas 두란노 성서지도

